

2019

06.24 - 11.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특별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부 삶과 죽음

김우백
임대헌

2부 남겨진 편지

유광화
한달문

3부 그날의 기억

가병수
고순택
김복환
김학두
윤치문
이기학
최도열
최원국
최운주
황종모

4부 다시 피어나는 희망

곽운중
김영원

우리
결의
동학농민군
이야기

녹두꽃

2019 | 가을 | 37호

녹두칼럼

왕현중 / 연세대학교 교수

기획① 역사 속으로

드라마 '녹두꽃' 사람, 하늘이 되다

참여자 유족 인터뷰

송기평 / 참여자 송대화의 손자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기획② 역사를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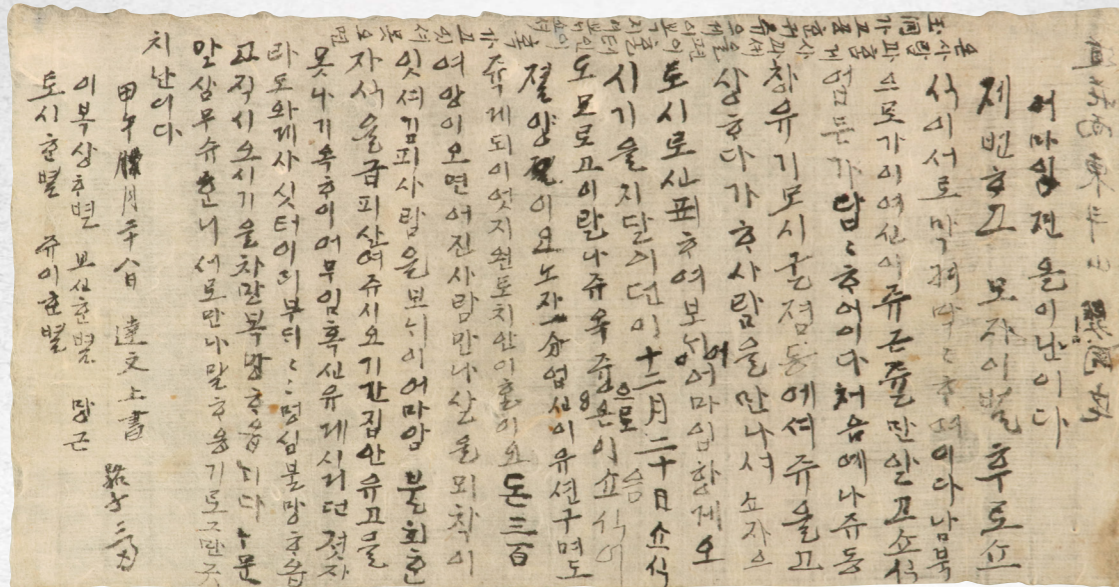
일본 아사히신문에 동학농민혁명 기사 게재되다

기고

박준성 /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 편지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제반하고 모자 이별 후로 소식이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다.
 남북으로 가셨으니 죽은 줄만 알고 소식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주 동창 유기 도시굴 점등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소자의 토시로 신표를 하여 보내어 어머님 함께 오시길 기다렸더니,
 12월 20일 소식도 모르고 이날 나주 옥으로 오니 소식이 끊어지고 노자 한 쭉 없으니
 우선 굶어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돈 300여 냥이면 어진 사람 만나 살 요핵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주소.
 그간 집안 유고를 몰라 기록하니 어머님 몸에 혹 유고 계시거든 옆 사람이라도 와야 하겠습니까.
 부디 부디 명심 불망하옵고 죽기 오시기를 차망복망하옵니다.
 남은 말씀 무수하나 서로 만나 말하옵기로 그만 그치나이다.
 1894년 12월 28일 달문 올림
 노자 2냥, 의복 상하벌, 보신 한 벌, 토시 한 벌, 주의 한 벌, 망건
 온 사람과 함께 가 파세를 편히 할 터이니 혹 가고가 있어 못 오면 옥동 가고골 한기수에게
 의복 지어 보내소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 편지 1894년 40×21.2cm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한우회 기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이 1894년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이다. 한달문은 나주 일대에서 활약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민
 보군에게 붙잡혀 나주초도영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으나 옥중에서 당한 혹독한 고초의 후유증으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사망하였다. 이 편
 지는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하여 희소가치가 매우 큰 자료로, 옥중에서의 생활과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02 **역사의 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 편지
- 04 **녹두칼럼**
왕현중 / 연세대학교 교수
- 06 **기획① 역사 속으로**
드라마 '녹두꽃' 사람, 하늘이 되다
- 14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수여식
2019년 상반기 기획전시 개막식
재단 이사회 개최
찾아가는 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특별전
- 24 **기획② 역사를 밝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동학농민혁명 기사 게재되다
- 28 **참여자 유족인터뷰**
송기평 / 참여자 송대화의 손자
- 34 **시사만평**
- 36 **기고**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 42 **지역단체 포커스**
삼혁명(三革當) 김영원(金榮遠)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식
동학농민혁명 재인부대 추모제
- 43 **교육·체험 운영**
녹두꽃, 다시 피다
- 46 **파랑새 소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단체
- 49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50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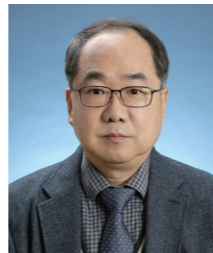


제자(題字): 효봉 여태명

표지 설명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인 1994년에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대외마을회관 앞에 세워진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건립 :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왕현종 연세대 미래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념일을 공모하고, 공청회와 기념일 선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학술계의 견해보다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참여도를 내세웠다. 기념일은 정읍이 제창한 ‘황토현전승일’로 양력 5월 11일(음력 4월 7일)이다. 근거는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대승한 날이다. 이 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황토현전승일”은 계급사회를 타파하는 우리 역사의 최대 민주혁명이자 그 혁명을 주도한 주체들이 바로 ‘전북인들이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과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어떻게 정립해야할까.

지난 1994년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사업을 위해 전국 각지 기념사업회의 왕성한 활동에 이어,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꾸려졌다. 현지조사를 통해 새로운 참여자와 후손의 고난한 삶을 밝혔다. 이후 전국적으로 민중혁명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마침내 작년 4월 서울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 건립이 이뤄졌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양반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에서 해방된 민중, 외세 침략을 막고 민족의 생존권을 주장하려다 좌절한 민중해방운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려는 것이다. 올해 국가기념일 행사는 서울과 정읍에서 대대적인 기념식으로 치러졌다. 광화문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모처럼 중앙무대에서 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밝혀야할 진실과 미해명의 과제가 어둠속에 묻혀있다. 동학농민혁명의 계기적 발전과정에 대한 해명은 말할 것도 없으며, 민중의 잔혹한 사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인 일본인 및 양반 민보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경각심을 환기할 문제는 동학농

민혁명의 복원이나 기억 찾기 운동이 과거 추적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진정한 기념일 제정 의미가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앞으로 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십오 년쯤 전, 고 표영삼 선생님과의 대화가 생각난다. 1864년 봄 동학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일화다. 많은 동학도들이 흩어지면서 최시형 선생께 다그쳐 물었다고 한다. “언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느냐”고, “개벽의 날을 언제 오느냐”고. 그때 해월 선생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하늘에서 검은 비단이 내려올 때 그것이 개벽의 조짐이라 생각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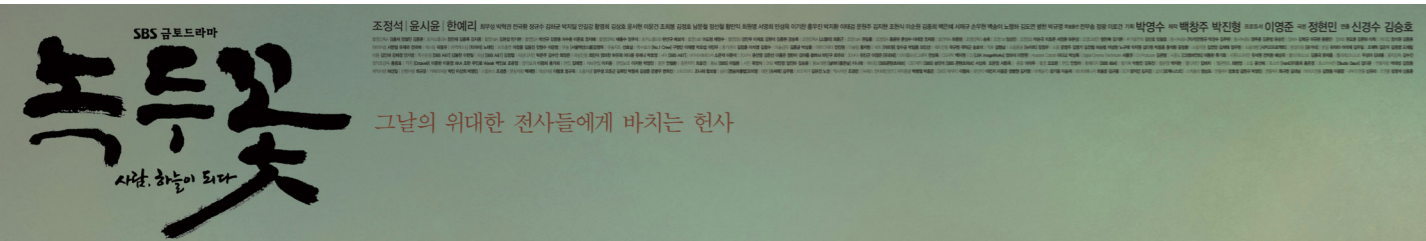
과연 개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실마리는 교조 최제우의 ‘몽중노소문답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上元甲)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라고 읊조렸다. 그날은 첫 갑자년인 1864년으로 비정되었으나 민중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만 판치는 패권 세상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80년 후 다시 갑자년을 고대해 본다. 2044년이다. 만일 그때까지도 지금의 분단과 사회적 갈등, 민중의 소외와 불우한 생을 방치한 채, 해방과 분단 100주년인 2045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떨까. 민중 해방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동학농민군들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또 외세 침략에 저항하며 투쟁했던 동학의 후예들인 독립투사들에게도 역시 면목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좁은 지역주의나 특정 계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족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선린을 위해 기억 유산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미래의 민중사회건설을 위해 저항·자유·해방을 위한 투쟁 대열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신세벽 개벽이 찾아올 날은 불과 25년밖에 남지 않았다.

왕현종 |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편찬 및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해안, 2016),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해안, 2017) 등이 있다.

드라마 “녹두꽃” 사람, 하늘이 되다

- 그 날의 함성이 다시 살아오다 -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방송 드라마 ‘녹두꽃’(48부작, 연출 신경수, 극본 정현민, 2019.4.26.~ 2019.7.13)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방송사상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 ‘녹두꽃’이 제작·방영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난 2월 26일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이자 민족주의 운동으로 그 위상이 재정립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백성에겐 쌀을! 탐관오리에겐 죽음을!”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농민봉기 당시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외친 절실하면서도 명료한 구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백성이 편안한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가리지 않았을 뿐, 갈 수 없는 곳이 아니야.”

동학농민혁명은 ‘인내천(人乃天)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 즉, 모든 사람이 귀천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염원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는 백성들이 결집하여 행정구역상 군·현의 경계를 넘어가면 ‘반란’으로 여겨 삼족을 멸(滅)하는 참화를 당해야만 했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고부군이나 무장현 등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을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사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약자들이었어”

우리 역사의 전환점에는 항상 힘없는 민초들이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항일의병, 3.1운동,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극 중 열자(孽子, 첩의 자식)로 태어난 백이강은 ‘거시기’로 불리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꺾박하며 살던 중 전봉준 장군을 만나면서 차츰 변화하여 동학농민군 ‘백이강’으로 거듭난다. 드라마 ‘녹두꽃’은 기층 민초들을 대표하는 ‘백이강’(가상인물)을 중심에 두고 극을 전개하면서 힘없는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모이면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힘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을 자기(일본)의 나라로 만들려 들었지”

이 대사는 극 중 일본의 앞잡이가 된 백이현이 재판을 앞둔 전봉준 장군에게 흥선대원군이 시킨 거라고 자백하면 살 수 있다고 회유하는 대목에서 전봉준 장군이 백이현에게 가르침을 겸한 대답(대사)이다. 일본은 조선왕궁인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한 후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살육 하라”는 일본 대본영의 명령을 일본군과 조선 관군에게 내린다. 극 중에서 일본 토벌대장이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 가는 거야, 일본의 영토로”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일본의 침략 야욕이 드러난다.



▣ 드라마 '녹두꽃' 극 중 장면 | 사진출처 : SBS 드라마 '녹두꽃' 제작팀

“슬퍼하지 말고 기억하란 말이외다.
우리를 기억하는 한
두 번 지지는 않을 것이오!”

-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압송되는 중 한 대사



▣ 압송되는 전봉준 장군 | 1894년

전해지는 전봉준 장군의 유일한 모습은 체포될 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들것에 들려 재판정에 오가는 과정에서 촬영된 눈빛이 형형한 사진이다. 사진 속의 전봉준 장군의 살아있는 눈빛은 사형수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의 눈빛이다. 드라마 '녹두꽃'에서도 보여줬듯이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자주적으로 국권을 지켜내고자 한 애국애족 정신은 이후 수많은 녹두꽃으로 피어났다. 갑오년에 들것에 들린 전봉준 장군의 눈빛, 그리고 오늘날 종로 네거리(옛 전옥서 터, 서울 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영풍빌딩 앞)에 우뚝 서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의 눈빛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녹두장군
전봉준

▣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 서울 종각역(옛 전옥서 터), 2018년 건립

“ 너는 해(害)를 입은 것이 없는데
왜 난을 일으켰는가?
일신의 해를 위해 기포(起包)함이
어찌 남자의 일이겠는가!
증민(衆民)이 원통하며 한탄(恨歎)하는 까닭에
백성의 해를 짓고코자 일어섰다.
다시(삼례에서) 기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일본)가 개화(開化)를 칭하고 한마디 말도,
한 장의 적서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都城)에 들어와
야반(夜半)에 왕궁을 적파하여 국왕을 꺾박하기에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일어나 너희들과 접전(接戰)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했다.”

- 전봉준 장군 재판 중 심문기록

인터뷰_ 배우 최무성

(드라마 '녹두꽃' 전봉준 역)

드라마 '녹두꽃'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묵직한 울림을 주었던 전봉준 역을 맡은 최무성 배우와 인터뷰(서면)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역으로 열연한 최무성 선생님, 바쁘신데 틈을 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녹두꽃'은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정부주관 첫번째 기념식이 거행 되던 때인 올해 봄과 초여름에 방영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많은 봉기와 전투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녹두꽃'에서도 전투장면이 많았습니다. 촬영하면서 힘든 점이 없으셨는지요?

A 힘들다는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많은 전투여서 연기하면서 슬픔이 엄습하는 등 감정적으로 일반적인 작품들과는 달리 좀 힘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 의병들의 간곡한 희망이 가슴 깊이 느껴져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Q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사회를 극복하여 만민이 평등한 근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일본군의 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항일민족운동이었습니다. 즉,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민주주의 뿌리이자 민족운동의 밑거름이 된 중요한 역사인데요. 그 역사적 사실이 주는 무게 때문에 연기하면서 부담감 컸을 것 같습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A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대사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전개되는 드라마여서 촬영장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배우들 간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인 전봉준 장군 역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봉준 장군 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Q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은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내가 죽어야 너의 형 같은 의병들의 투지가 산다"고 백이현에게 말하는 대사가 기억에 많이 납니다. 자신의 죽음마저도 의로운 일에 써야한다고 말했던 전봉준 장군의 용기와 일편단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를 하면서 '전봉준 장군은 정말로 순결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셨구나'라고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하면 전봉준 장군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전봉준 장군 역을 맡으셨는데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 전봉준 장군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전봉준 장군 역을 몸소 연기하면서 느끼신 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연기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는 국사책에 배운 보편적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식 안에서 의기가 넘쳤던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를 찍으면서 전봉준의 인간적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급진적인 면도 있지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분, 조화로운 인성을 지닌 훌륭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전봉준 장군은 키가 작고 왜소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구가 좀 큰 편이어서 시청자분들이 전봉준 장군에 몰입하기 힘들까봐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인 면보다는 전봉준 장군의 내면적 갈등을 잘 형상화하려고 연기에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힘없는 민초들에 의해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갑오년 12월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져 미완의 혁명으로 마감되고 말았지만, 그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은 항일의병, 3.1운동,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 '녹두꽃' 방영은 이런 점들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뜻깊은 드라마에서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 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A 드라마 '녹두꽃'을 통해 사람이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한번쯤 더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였듯이, 이 드라마는 누구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때 혁명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모든 동학농민군", 그 분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인 만큼 오래 오래 기억되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드라마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에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Q 드라마 '녹두꽃' 종영 이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성 배우님은 역사극 및 현대극 등에서 어떤 장르든지 무게감 있는 울림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다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수여식



▣ 임원 및 유족대표 16인



▣ 유족등록통지서 수여식

지난 6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 동학농민혁명참여 유족으로 등록된 유족대표 16명에게 동학농민혁명참여 유족등록통지서를 전달하는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규(재단 이사장·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최효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유족대표 16명(공현순·허영·정휴섭·이상희·이용기·최강경·김기욱·문한배·기경도·최락삼·김부용·정영균·최락정·김옥조·함길영·장형대)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2019년 상반기 기획전시 개막식



▣ 인사말 |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축사 | 최효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 축사 | 유진섭 정읍시장



▣ 축사 | 최낙삼 정읍시의회의장



▣ 테이프 컷팅식



▣ 전시해설

지난 6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상반기 기획전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특별전] 개막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축사, 유물기증자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컷팅식 및 전시실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형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최효섭(동학농민혁명유족회이사장)·유진섭(정읍시장)·최낙삼(정읍시의회의장)의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데 있어 전시내용(증언)과 유물기증 등으로 도움을 주신 동학농민혁명참여 유족(김정완, 김창식, 이득만, 최낙인, 최병관, 한우회) 내빈이 직접 참석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 문화유산 관계자, 정읍시 의원, 관련 기념단체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재단 이사회 개최



지난 8월 2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기념재단 제4기 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정관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된 정관 및 직제규정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신설 등이다.

찾아가는 기념관 운영



▣ 전라북도 교육청 | 6. 27. ~ 7. 19.



▣ 정읍역 전시 | 7. 8. ~ 8.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념관 운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찾아가는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 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장과 전국 교육기관 등을 찾아가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홍보용 패널을 전시한다. 주요 내용은 '3.1운동으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이 항일의병, 3.1운동으로 이어진 사실과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만화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난 6월~8월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정읍역, 전주한옥마을 등을 찾아 전시를 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전시해설, 영화상영, 문화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일시 | 매달 마지막 토요일 13:00~17: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프로그램	시간	장소
전시해설 '황토현 역사이야기'	13:00 ~ 14:00	전시실
영화상영 '녹두상영관'	14:00 ~ 16:00	전시실 내 녹두학당
문화공연	16:00 ~ 17:00	교육관 대강당

월별	문화공연 프로그램
8월 31일	트레블러 크루 '택견 비보이'
9월 28일	역사뮤지컬 '내친구, 유관순'
11월 2일	미술사 홍대기 '코믹 미술'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1894.or.kr) 참조



▣ 문화공연(6월) | 물의 요정 방울이



▣ 전시해설(7월) | 황토현 역사이야기



▣ 전시해설(8월) | 황토현 역사이야기



▣ 문화공연(8월) | 택견비보이 트레블러 크루 초청공연

우리 곁의 동학농민군 이야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특별전

기획 | 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정명광
일러스트 | 허인석



□ 전시실 입구

지난 6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특별전】 “우리 곁의 동학농민군 이야기”라는 주제로 기획전특별전을 개막하였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 유족 10,567명을 등록하였다. 이번 전시는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동학농민군들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1차 사료, 재단 및 유족회에서 제작한 유족 증언록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한 편의 동화처럼 그려냈다. 전시구성은 총 4부로 삶과 죽음, 남겨진 편지, 그날의 기억, 다시 피어나는 희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 가아했던 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돌아보고, 그동안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그저 가슴속에만 품으며 고난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던 유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동화를 소주제별로 소개하였다.



□ 전시실 내부



1부 | 삶과 죽음

1894년 갑오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굴곡진 역사 속으로 뛰어든 동학농민군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만 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운명의 순간, 그 시간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보낸 16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다고 집을 나선 남편 김우백.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히고 맙니다. 여러 달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자 겨우 방면이 됩니다. 극진히 간호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김우백은 16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 박씨는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이러한 정성을 뒤로하고 김우백은 결국 16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부인은 어린 두 아들을 잘 길러내고 시부모에게도 효성을 다합니다. 그런 그녀의 지극한 효열은 보수적인 무안향교와 지역의 어른들을 움직였습니다. 무안 향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김우백의 부인을 열녀로 포양하게 됩니다. 김우백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을 16년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삶' 속에 있었던 건 박씨 부인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 동학농민군 김우백 관련 경통 1912년 57.4 × 90.5cm 동학농민혁명기념관_김정완 기증
1912년 무안향교에서 무안 박씨를 포양(褒揚)하기 위해 지역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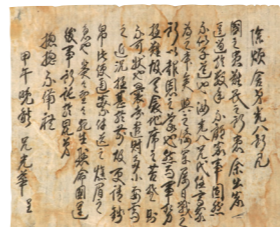
2부 | 남겨진 편지

고향, 집, 가족도 뒤로 한 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던 많은 동학농민군들. 그런 그들에게는 그리움, 걱정, 원망, 기대, 기원, 존경, 근심 등 수많은 단어들로 가슴을 채우고 한없이 기다리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1894년이 끝나갈 때 즈음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동학농민군들의 비장한 각오와 삶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1894년 늦은 가을, 전라도 나주에 사는 유광팔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 편지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집을 떠난 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은 효성이 지극해 부모를 봉양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학문에도 정진해 문장가로 이름도 날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홀연히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조선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늘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랐던 강직한 형. 1894년 형 유광화는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의 근심과 재난은 백성이 근심할 바이므로
비가 수년 동안 짐을 나와 머무른 것이네.
집안일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자식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데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왜냐와 함께 여러 날을 싸우는 것은 보은을 입었기 때문이네.
그러나 형씨가 극히 어려워진 까닭에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가히 형용할 수가 없네.
전날에 보낸 얼마간의 재물은 요긴하게 썼는데
최근의 형편이 권보다 몹시 심히진 고로 다시 돈과 비단을 청하네.
이 소식을 잘 살펴 급히 재물을 보내주게.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하길 바라고 또 바랄뿐이네.
뒷일은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예를 갖추지도 못했네. 갑오년 늦가을 형 광화 보냄.”



■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1894년 29 × 24cm 동학농민혁명기념관_김순덕 기증
1894년 동학농민군 유광화가 고향에 있는 동생 유광팔에게 보낸 편지이다.

3부 | 그날의 기억

1894년 그날, 들불처럼 일어났던 조선의 동학농민군들

“옳지, 하늘이 어찌 무심하라. 이놈의 세상은 망하고 새 세상이 나와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시작되었지만 누군가는 아버지를, 자식을, 소중한 가족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스러져간 용감했던 당신을...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잃어야했던 1894년 어느 날을...

고갯마루를 자작자작 적신 동학농민군의 피

홍천에는 ‘자작고개’가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투가 어찌나 치열했는지 그날 스러져간 동학농민군들이 흘린 피가 고갯마루를 자작자작 적실 정도로 흥건했다고 하여 자작고개라 불린다고 합니다. 최주호의 할아버지 최도열은 강원도 홍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 10월 23일 홍천 서석 전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도열 집안의 남자들은 어린 아이셋만 남기고 거의 다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 동학농민군 최도열의 손자 최주호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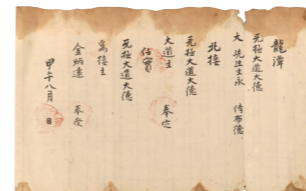


4부 | 다시 피어나는 희망

1894년 그해, 우리는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가면 새봄이 오고 노랑나비가 날아오듯이 그 흑독하고 추운 겨울은 새로운 봄을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추웠던 그해 겨울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노랑나비가 되어...

1894년 겨울 이씨 부인은 첫째 아들 교민, 둘째 아들 교식, 셋째 아들 교섭을 데리고 시가로 떠납니다. 그때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가와 친정, 친척집을 번갈아 찾아다니는 세월이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씨 부인의 남편 김영원은 1889년 동학에 입도해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도집강 최승우를 도와 폐정개혁에 힘쓰다가 11월 남원성 싸움에서 패전하고 관군에 쫓겨 산 깊숙이 숨어 6년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회문산 산속에서 관군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동안 이씨 부인은 세아들을 혼자서 기르고 지켜야 했습니다.



▣ 동학농민군 김영원 접주 임명장 1894년 25.5 × 41.5cm 김창식 소장
1894년 동학교단에서 김병원(김영원의 다른 이름)을 접주로 임명하는 임명장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특별전】 “우리 곁의 동학농민군 이야기”에 도움 주신 분

김우백의 증손자 김정완, 임대현의 손자 임천근, 유광화의 손자 유길홍, 한달문의 손자 한우회, 가병수의 고손자 가순옥, 고순택의 손자 고재호, 김복환·김진환의 손자 김국태, 김학두의 증손자 김종원, 윤치문의 증손자 윤영식, 이기학의 손자 이득만, 최도열의 손자 최주호, 최원국의 손자 최병관, 최윤주의 손자 최병두, 황종모의 증손자 황금고, 곽윤중의 손자 곽사호, 김영원의 손자 김정갑·증손자 김창식

일본 역사학자로부터의 편지

일본 근현대사 최초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 일본 아사히신문에 게재되다

2019년 1월 23일 일본에서 동학농민혁명재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2006년부터 매년 한·일 역사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는 기행'팀의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나라여대 명예교수였다. 나카츠카 교수는 2006년부터 일본의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는 기행팀'을 구성하여 13년 동안 매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답사해왔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백성들이 자국의 국권 수호를 위해 일본군에 맞서 일어난 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건을 작은 소요 정도로 치부하며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두고 부끄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나카츠카 교수는 말한다. 편지와 함께 동봉된 신문기사(사본)는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역사탐방에 참여한 적이 있는 조마루 요이치(上丸洋一,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2019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게재한 내용이었다. 나카츠카 교수는 일본 최대 신문사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를 다룬 것은 일본 근대사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寒中) 문안인사 드립니다.

일본의 조일신문(朝日新聞, 아사히신문) 석간에

「동학농민전쟁을 찾아서」라는 기사가 5회에 걸쳐 연재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제13회 동학농민군의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에 참가한

조일신문(아사히신문)의 기자, 조마루 요이치(上丸洋一)씨가 쓴 것입니다.

일본의 큰 신문에서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며 쓴 기사는

일본 근대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을 준 한국 여러분들에게도 전달 드리고 싶어 복사본을 만들어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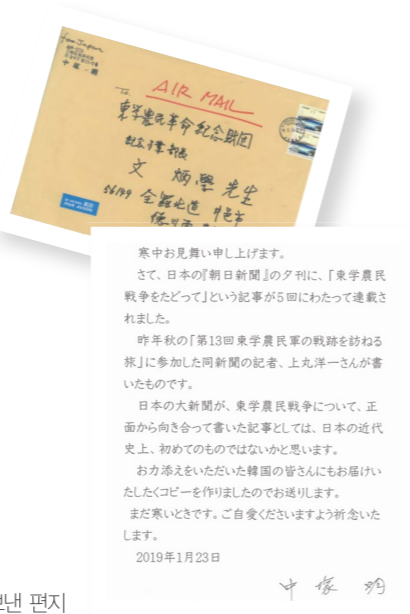
아직 추운 때입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 번역 | 박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가 보낸 편지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 나라여대 명예교수. 한일관계사,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의 권위자. 일본학술회의 회원, 나라현 역사교육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일본인으로 구성된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는 기행팀'을 구성하여 13회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탐방을 통해 동학농민군 학살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왔으며, 저서로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 또 하나의 청일전쟁』 등이 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된 '동학농민전쟁을 찾아서'라는 기행문 형식의 기사는 그동안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역사의 뒤안길에 암장(暗葬)하려는 불온한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동학농민혁명의 봉기 배경, 주요 사상, 전투 양상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사실은폐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사 일부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봉기 배경, 그리고 일본 역사학자의 사과

“ 동학농민전쟁은 나의 조부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3만 명이라고도 얘기되는 조선 농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깊이 사죄합니다. ”

-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동학농민혁명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당시 조선의 봉건적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고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반외세 혁명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동안 민란(民亂) 또는 동학난(東學亂)으로 왜곡되어 왔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찾아온 일본의 역사탐방팀은 충청남도 태안의 갑오동학혁명추모탑 앞에서 엄숙하게 묵도하였다. 함께 역사탐방에 참여했던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문영식 이사는 “이 주변은 많은 농민의 시신이 흩어져 냇가가 피로 물들었다고 들었습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의 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죽창을 들고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일본의 근대 신무기에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역사탐방팀 이끌어온 나카츠카 교수는 동학농민군의 위령탑으로 가는 길목에서 동학농민군과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사죄의 뜻을 전했다. “동학농민전쟁은 나의 조부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3만 명이라고도 불리는 조선 농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깊이 사죄합니다.”



▣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나라여대 명예교수_2017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당시 사진

● 동학농민군의 전투 양상 - 불살생(不殺生)의 정신

무참하게 살생을 자행한 일본군과 달리 동학농민군은 가능한 적을 죽이지 않는,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여러 연구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충청도 연산에서 농민군의 전투 모습을 일본 「동학당토멸대대」(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 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정오, 병사가 출발하려는 순간, 전면의 산에 검은 옷을 입은 수천의 적이 수백의 기를 나누끼며 나타났다. 잠시 후에 주위의 산은 순간 백의의 병사로 빼곡했다. 농민군은 적어도 3만 이상은 되어 보였다.”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동학당정토약기」

위의 상황은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시각적으로 위협하여 상대를 죽이지 않고 쫓아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한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일본 북해도대학 명예교수)의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저서에서 “660명의 동학당토멸대대는 1894년 11월 파병되어 이듬해 2월 작전종료까지 기록상 병사자를 제외하고는 1명의 전사자를 냈을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게재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 (2019.1.15.~1.21)



● 일본군의 전투 양상 - “모조리 살육하라”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살생했을까?

- 1894년 12월 3일 : 마을로부터 다음 마을까지 6리의 거리, 먼저 간 다른 부대에 의해 민가 수 백호가 태워졌다. 많은 사체가 길가에 나뒹굴고 있으며, 개나 새가 먹고 있다.
- 1895년 1월 2일 : 밤, 동학농민 5명을 체포해 왔다. 고문의 끝, 총살, 사체는 태웠다.
- 1895년 1월 12일 : 해안을 따라 전진. 적의 잔당 11명을 체포해 죽였다. 다른 3명은 몸과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도망가 최후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 1895년 1월 31일 : 농민군 잔당 7명을 체포해서 밭에 일렬로 세우고, 총에 검은 불어 일제히 찢러 죽였다. 보고 있던 조선 정부군 병사는 경악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이노우에 가츠오 교수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군 병사 중 도쿠시마현 출신 병사가 쓴 중군일지를 찾아 공개한 일기이다. 일본의 동학당토멸대대(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는 시코쿠 4개의 현에서 병사를 소집하여 구성되었다. 토멸대대의 파견에 따른 육군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는 전선(電線)으로 이렇게 명령했다. “동학당에 대해 처벌은 열렬히 할 것을 요함. 향후 모조리 살육할 것” - 「일청전쟁과 조선」, 박종근

● 동학 농민군 지도자 유골-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실에서 발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한·일 교류 연구는 빛바랜 신문 문치에 쌓인 사람의 두골 6기가 골판지 상자에 담겨 1995년 홋카이도 대학 연구실에서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6기 머리뼈 중 1구의 유골의 표면에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1906년 일본인 사토 마사지로가 ‘전남 진도에서 채집’하여 일본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던 이노우에 교수는 “일본은 1895년 1월, 동학농민군을 조선남서부 진도로 몰아넣고 토벌했다. 그런데 공식 전사(戰史) 「메이지 27, 8년 일청전사」 전 8권은 3만 명 이상의 조선 민중이 전사한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어찌서인지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 제8권에 겨우 3쪽 분량 「폭도진정(暴徒鎮定)」의 경과가 기록되어 있는 정도이다.”고 밝혔다.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



●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반성

“우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뿐 만이 아닌 일본을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일본 내에서도 잔혹한 일본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역사탐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나카츠카 교수는 “우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 뿐 만이 아닌 일본을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고 전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나카츠카 교수는 「역사의 위조를 바로잡다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다. 2006년을 시작으로 13년 동안 매년 실시된 일본 역사탐방의 참여자는 3백여 명에 달한다. 2019년 역사탐방을 마치면서 89세인 역사가 나카츠카 교수는 “13회 동안 계속해서 오면서 그만큼 수 없었습니다. 건강히 허락하는 한 내년에 도 계속할 것입니다. 부디 꼭 참가해 주십시오.”라고 참여자들에게 인사말을 남겼고 참여자들은 박수로 화답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대화의 손자 송기평

Q 이번 호 유족 인터뷰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에서 대접주로 활동하신 참여자 송대화의 손자 송기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녹두꽃' 독자를 위해 선생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우선 '녹두꽃' 인터뷰를 요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두호의 증손자이자 송대화의 손자인 송기평입니다. 고향을 떠나 살다가 20년 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시 고부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 동학농민혁명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축소되고 왜곡된 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2월에는 마침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지난 5월 11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주관으로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봄부터 중앙방송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드라마 '녹두꽃'이 제작·방영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참여자 후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A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적으로도 참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동안은 역적의 후손으로 인식되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참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이라고 내놓고 말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도 되고 드라마 '녹두꽃'도 방영됨으로써 혁명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동학농민혁명을 '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유족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가세가 기울어 힘들게 여생을 보냈던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Q 조부님(송대화)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요?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나요?

A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였을 거예요. 일본 대학생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연구를 한다며 저희 집에 취재를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동학혁명모의탑을 1969년에 건립했으니까 아마 그 무렵쯤이었을 거예요. 저의 고모님이 일본 대학생에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저도 사발통문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자료 발굴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일본 대학생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면서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고모님이 여든을 훌쩍 넘기셨을 때었는데 동학농민혁명의 산증인으로 저희 집안의 내력과 동학농민혁명에 활동하셨던 증조부(송두호)님과 조부(송대화)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집안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선생님의 조부(송대화)님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선생님의 집안에서 사발통문이 발견되었고, 동학혁명모의탑도 선생님 집안에서 사비를 내서 건립을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A 네, 할아버지께서는 대접주로 활동하셨고 대접주 임명장과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사발통문이 1968년에 저희 집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발통문이 발견된 후 1969년에 마을(정읍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입구에 동학혁명모의탑을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참여했던 후손들이 뜻을 모아 건립하였습니다. 이 탑을 건립할 때 저희 집안이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탑을 깎는 석공 네 명을 저희 집에서 다 수발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집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A (송기평씨의 부인) 증조부님(송두호)께서는 저희 집안 차 종손인데요. 증조부님한테는 저희 바깥양반(송기평)이 제일 큰 증손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바깥양반이 외부 일로 많이 바빴기 때문에 며느리인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너도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저희 집안에 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동학혁명모의탑 건립할 때가 1968년 가을이 지나고 12월 겨울이었는데 석공 네 명이 어머니 집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을 전기기로 돌탑 모양이나 글씨를 다 파지만 그때만 해도 정으로 일일이 쪼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두 달 동안 석공들에게 밥을 해 주시면서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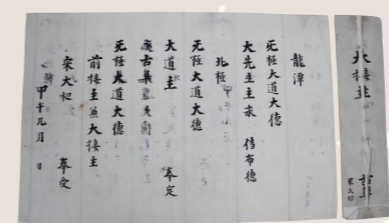
Q 선생님께서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듬해 2005년에 유족등록 신청을 하셨는데요. 유족 심사조서에 선생님의 조부님께서 고부관아를 점령한 후 1894년 겨울 나주전투에서 패배한 후 진압군의 총에 관통상을 입고 야간에 전라도 임피로 피난간 것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부님의 활동과 임피로 피신한 후 행적에 대해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조부님은 나주전투에서 일본군한테 팔에 관통상을 입고 토물 방죽 위 진동(농민군 훈련장)에 쓰러졌는데, 그 옆에 여러 구의 시체가 있었답니다. 죽은 척하고 누워있었는데 일본군이 확인사살을 하러 2명이 왔답니다. 그 중 1명이 많은 시신을 한 번에 치우지 못하니 거적으로 덮어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관통상을 입은 팔을 소나무의 송진을 파서 바르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포구로 나가 배를 타고 군산 임피로 피신했다고 들었습니다. 피신한 후에는 성씨를 증조모님의 성(姓)을 따라 ‘장(張)’으로 바꾸고 성(姓)을 팔았다고 해서 이름을 ‘성팔(姓八)’ 그래서 ‘장성팔(張姓八)’이라는 이름으로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다가 사람을 보내 고향집이 있는 고부의 정세를 살핀 후 임피로 피신한지 11년만인 1905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Q 아, 네. 할아버지께서 다행히 살아남으셔서 고향에 돌아오셨군요. 대부분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후손들은 이후로도 줄곧 관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재산을 약탈당해서 가세가 기울어 힘들게 사셨다고 하는데, 조부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신 후 집안 형편은 어떠하셨나요?

A 할아버지(송대화)는 고향에 아내(송기평의 조모)와 어린 딸을(송기평의 고모)을 두고 피신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할머니와 고모에게 와서 할아버지가 어디로 피신했는지 말하라며 모진 고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나무로 만든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고모님과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집안이 이미 썩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 전에는 증조부(송두호)님의 집안은 고부군 일대 마

을에서는 증조부님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천석꾼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굶거나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증조부님께서 고부관아에 곡물을 엄청나게 바쳤다고 합니다. 증조부님은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셨고, 1894년 나주전투 이후 도피생활을 하시다가 진압군에게 피체되어 1895년 1월 6일에 형사(刑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일이 1월 5일 피체일입니다. 증조부님의 뜻을 따라 조부님도 동학농민혁명에 앞장서서 활동하셨고 다행히 살아남으셔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에 돌아와 보니 집도 소실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해서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 칸짜리 흙집을 한 채 지어 줘서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저의 아버님 그리고 저도 살았는데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 아버님(송후섭)도 힘들게 사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송기평)인 저를 대학도 못 가르친 것을 어머니는 두고두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많은 땅을 다 빼앗겨 자식들 고생시키고 역적으로 몰려 숨죽이고 산 세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

동학혁명모의탑 앞



■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앞(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

Q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항일의병, 3.1운동과 반일항쟁과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민족의 위대한 스승인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이 면면히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부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신 후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할아버지께서 3.1운동에 참여하셔서 옥고를 치렀다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문헌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족 분 중 한분인 고(故) 김영중 선생님한테 할아버지(송대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족 분들이 모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들이 3.1운동에 많이 참여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05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후에는 천도교 487 교리강습소를 재건하여 포교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왔다네, 왔다네, 대화가 돌아왔다네”라며 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께서 덕을 많이 쌓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Q 1920년대 중후반에 집필되어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東學史』(초고본)과 사발통문에도 송대화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 다른 자료나 문헌이 있으신지요?

A 할아버지(송대화)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았는데요. 자료가 싸리로 만든 상자 15개 정도는 돼 보였다고 고종사촌 형님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후손들이 해가 입을까봐 많은 자료를 없앴고, 아버님(송후섭)께서도 제가 묻지 않으면 거의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아버님께서 족보 속에 사발통문, 대접주 임명장 등을 보관하시고 계시다가 1968년에 문중회의 때 공개했고, 그 문헌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셨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도 제정되고 드라마 ‘녹두꽃’이 방영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주변에서 유족 등록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지요?

A 얼마 전에도 전주에 사는 분한테 문의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100년이 넘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어도 유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발통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되지만 사발통문에 안 나오는 사람은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할 때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족이 아닌 사람을 유족으로 등록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 등록하는 데 있어서 재단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Q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제가 유족회를 나간지가 20여 년 되는데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유족회 이사로 있는데 유족회에서 전국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부 몇 분만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유족 분들이 연세도 많으셔서 숫자도 많이 줄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유족 분들이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일도 제정되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점점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평씨 가족 |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앞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만화 | 최영두 (만화가)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박준성 |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역사의 사건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의 축적에 따라 점점 풍부해진다. 현실의 요구와 이해에 따라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다시 보게 된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제도의 운영과 인물의 교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개선으로 대안을 내세울 것이고,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면 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구조와 체제 자체를 변혁하지 않고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 혁명을 꿈꾸게 될 것이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입장(立場)을 좌우한다. 만화 <송곳>의 명대사 가운데 하나인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입장에 따라 과거의 역사는 재해석되면서 지금 여기의 역사로 살아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현실을 보는 관점도 입장에 좌우되기는 마찬가지다.

촛불항쟁이 시작되기 전에 노동자들이 먼저 투쟁에 나섰다.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하나하나 촛불이 늘어나고 촛불항쟁이 시작되면서도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전민항쟁으로 번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해 6월 10일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발걸음이 6월항쟁이라는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1980년 5.18민중항쟁 때도, 1960년 4월혁명 때도, 1946년 10월 인민항쟁 때도, 1919년 3.1운동 때도,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도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낼 미래의 역사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전국적 규모로 타올랐던 민중의 항쟁은 1894년 근대적인 갑오개혁과 1920년대 무단통치의 방식을 바꾸는 문화정치,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뒤 집권한 민주당 정권, 1987년 4.13호헌조치를 폐지시키는 직선제 개헌과 2016~2017년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민중의 항쟁으로 이룬 성과를 독차지한 세력이 자신의 힘으로 수구 특권 기득권 세력을 제압할 힘이 없다면 민중의 요구를 해결하면서 민중의 힘을 빌려 개혁을 추진해야 했다. 스스로가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일부였던 개혁세력은 민중적 개혁을 추진할 실력과 의지가 없었다. 그 결과 식민지와 분단의 근현대사는 이식 자본주의가 정착되고 모순이 심화되면서 국토와 체제의 분단 못지않게 극단화된 계급의 양극화라는 내부 분단이 형성되었다. 그 뿐 아니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은 계속 파괴되었고 다양한 차별이 양산되었다.

현실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항쟁의 주체는 대리자들의 '예방혁명'에 현혹되었다. 개혁을 디딤돌로 삼아 변혁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민중의 항쟁은 늘 부분적인 승리 이후 패배로 귀결되었다. 그렇다고 과거의 패배가 역사의 실패는 아니었으며, 반복되는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는 허무적 전망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박준성 |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근현대 민중항쟁과 노동운동 관련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산하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989) 때부터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힘써왔으며, 저술로는 「박준성의 노동자 역사 이야기」,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등이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근현대 민주항쟁의 역사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던 높은 봉우리였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1월 고부봉기에서 고부 관아를 점령한 뒤 황토현 싸움에서 전라도 감영군과 싸워 승리하였고, 장성 황룡촌 싸움에서는 1811~12년 ‘홍경래 난’ 이후 83년 만에 중앙에서 파견된 경군의 한 부대와 싸워 이겼다. 나아가 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1894년의 갑오개혁을 이끌어 냈으며,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여 자치 질서에 영향을 미친 ‘집강소 체제’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9월 이후에는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대대적인 반침략 저항 운동에 나섰다. 밑으로부터 민중이 조직체계를 갖추고, 무장을 한 뒤 서울까지 진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일 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항쟁을 계속한 대규모 사회변혁운동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말고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1894년 강원도에서도 동학 농민군이 자신의 생존과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투쟁에 나섰다. 집강소가 설립된 전라도 지역의 농민군 활동 소식은 강원도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농민전쟁의 수습책으로 실시된 정부의 개혁이 후퇴하고 친일 내각을 앞세운 일본의 내정 간섭이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불만과 위기감이 높아갔다. 농민들은 지배층의 욕심으로 외세가 조선 땅에 들어왔다고 인식하고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각지에서 농민들은 계속 폐정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자제하던 양반과 부민들에 대한 투쟁의 강도도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강원도에서도 동학 조직을 매개로 움직이던 농민들이 8월부터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1894년 당시 강원도 행정구역은 강릉대도호부, 원주목, 양양·삼척·회양·춘천·철원·영월·이천의 7개 도호부, 고성·간성·통천·평해·평창의 5개 군, 흡곡·울진·금성·김화·안협·평강·낭천·양구·인제·홍천·횡성의 11개 현이었다. 강원도에서 농민군이 활동한 지역은 평창·정선·영월·강릉·삼척·홍천·원주·횡성·양양·기린·간성·인제·춘천·김화·금성 등지였다. 강원도 전체 고을의 반 이상 지역에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평창·정선·영월·강릉·삼척·홍천·원주 등지에서 활동이 활발하였다.

8월 중순 무렵부터 평창 쪽에 결집해 있던 영월과 평창·정선 등 5개 읍의 농민군 수천 명이 9월 들어 먼저 강릉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9월 4일 오전, 1천여 명이 넘는 농민군 본대가 강릉부 관아를 점거하였다. 전라도 쪽 전봉준 세력이 집강소 체제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9월 10일 무렵이나, 최시형이 9월 18일 기포령을 내리고 북점 교단지도부가 활동에 나선 때보다 보름여 앞선 때였다.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먼저 강릉부 관아 동문에 “삼정의 폐막을 고치고 보국안민 한다”는 방문을 내걸었다. 곧 이어 각 마을의 주민들을 불러 모아 삼정을 삭감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요호라 불리는 부자들을 잡아들여 토지와 재산, 전답문서를 빼앗고, 수탈을 일삼던 이서배들을 잡아 족쳤으며, 민간의 송사를 처리하였다.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등 5읍의 접주로 불렸던 농민군 지도자 차기석과 접주 박종백이 이끄는 강원도 중부내륙 지역의 농민군도 10월 13일 밤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동창(東倉)을 점거하였다. 농민군이 먼저 중부내륙의 중심지인 동창을 친 것은 교통의 요지를 장악하고 세곡을 균량미로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삼정이정’의 의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강릉부를 점령했던 농민군은 영동 일대의 최대 지주이면서 승지를 지낸 이회원과 이서배들의 반격에 밀려 평창 쪽으로 퇴각하여야 했다. 중부 내륙의 농민군도 지평현감 출신 맹영재의 토벌대와 관군들에 의해 홍천 서석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내면 쪽으로 후퇴하였다. 강원도 농민군은 충청도, 경기도 쪽 농민군과도 연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지방의 토호들이 이끄는 민보군, 관군, 일본군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투쟁의 막을 내려야 했다.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은 패배했으나 투쟁의 경험과 정신은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만세시위운동이다. 1919년 4월 3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화촌면·서석면·내면, 인제군 기린면의 5개면 주민 3천여 명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다. 그 자리에서 8명이 일본군의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 해방 후 1946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연 곳도 홍천이었다.

1894년, 개화파 정권이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혁을 완성하고, 농민군과 협력하여 침략 외세와 맞서 싸워도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의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고 오히려 일본군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일본군의 조종과 지원을 받으며, 침략 외세에 맞서 싸우려는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농민군은 침략자 일본군, 친일 개화파 정권의 정부군, 각 지방의 보수 유생 토호 세력에 의해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남기며 패배했다.



복원된 강릉관아 전경 |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강릉관아, 임영관(臨瀛館)을 점령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탐관오리·양반·토호들의 탄압과 경제적 수탈을 금지 하고, 노비제도를 폐지하여 신분상의 차별 대우를 없애고, 무명잡세를 폐지하고 고리대를 무효화하고, 친일 분자를 처벌하고 미곡의 일본 유출을 금지하고, 양반과 정부의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일본과 외세의 조선 침탈을 반대하며 싸웠다. 투쟁 과정과 동학 조직에서 농민군은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을 미리 경험해 보기도 하였다. 충청도의 접주였던 홍종식은 투쟁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농민군의 수평적 관계의 실체를 이렇게 증언했다.

“ 이 때에 있어서 제일 인심을 끈 것은
 커다란 주의나 목적보다도 또는 조화나 장래의 영광보다도
 당장의 실익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입도만 하면 사인여천이라는 주의 하에서
 상하·귀천·남여·존비 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고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심열성복이 되었고,
 둘째, 죽이고 밥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도인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먹으라는 데서 모두 집안 식구같이 일심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참말 천국천민들이었지요. ”



■ 기미만세상(己未萬歲像)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 녹도 전적지(강원도 정선군) | 동학농민혁명 당시 1894년 11월 6일 정선에 모여 있던 농민군이 일본군 및 강원감영 병사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은 생존권을 확보하여 먹고 살 걱정 없는 세상, 위아래 차별 없이 사람대접 받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다. 그런 꿈을 상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구호가 “밥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였다. 지금도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 앞에서 ‘밥이 하늘’이라고 외쳐야 하고, 사람 사이의 차별이 증폭되어 인간의 자존과 존엄이 짓밟히는 세상이라면 1894년 동학농민군이 외쳤던 ‘밥이 하늘인 세상’ ‘사람이 하늘인 세상’은 여전히 ‘지금 여기’의 꿈이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혼자로는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의 요체는 좋은 사람들 만나 맛있게 잘 먹고 스스럼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일상이다. 사람 사이에 차별 없이 평등하고, 입으로 먹을 식량 걱정 없는 상태가 단어 뜻대로 ‘평화(平和)’로운 상태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학농민군의 추구하던 꿈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여전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꿈,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다.

삼혁당(三革堂) 김영원(金榮遠)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식



사진출처: 전민일보

2019년 8월 26일 전북 임실군 운암면 삼요정에서 삼혁당 김영원 선생의 순국 100주년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삼혁당 김영원 선생 추모회(회장 김창식)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김영원 선생 약사 보고, 추모사, 제례 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북 임실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3.1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옥중 순국하신 김영원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 최효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이강한 광복회전북지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기관 및 유족,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재인부대 추모제



사진출처: 전북도민일보

지난 8월 31일 제1회 '동학농민혁명 재인부대 추모제'가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전적지인 전북 완주군 대둔산항쟁전적비 일원에서 열렸다. 재인(才人)부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과 팽과리를 들고 농민군 선봉에 섰던 부대로 동학농민혁명군의 사기진작과 진격에 앞장섰다. 동학농민혁명재인부대 국악추모제 조직위원회와 일본제대로알기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한 추모제에서는 희생된 재인부대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는 헌시 낭독, 추모공연, 견기대회를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하여 후손 및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녹두꽃, 다시 피다

기념재단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체험하였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녹두장군 되어보기, 아기점주 캐릭터 공예품 만들기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드게임, 퍼즐 맞추기, 녹두 골든벨, 유적지 답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인·가족을 위한 생생 문화재 답사프로그램,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생생문화재 답사 (2019.5.25. ~ 5.26.)



생생문화재 답사 (2019.6.15. ~ 6.16.)



생생문화재 답사 (2019.6.29. ~ 6.30.)



익산 남성고등학교 (2019.7.23.)



전주 기린중학교 (2019.7.11.)



교원 직무연수 (2019.7.25. ~ 7.26.)



익산고등학교 (2019.7.10.)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정읍 황토현전적(국가사적 295호)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9월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주요 방문단체는 김제 북초등학교(12명), 전주 신흥고등학교(27명), 정읍시 기관장들(18명), 대구 대건중학교(49명), 정읍 배영고 국제교류단(7명), 평택 라온중학교(18명), 익산 남성고(23명), 인천 부평구 시민(5명), 전북 귀농학교(30명), 정읍 학산고등학교(25명), 정읍시 칠보면 주민(5명), 광주 남초등학교(25명), 전남 무안동학기념사업회(18명), 정읍 왕신여자고등학교(42명), 대순진리회(9명), 대전 상생방송 관계자(3명) 등이다.



1	2
3	3

- ① 김제 북초등학교(12명)
- ③ 정읍시 기관장들(18명)

- ② 전주 신흥고등학교(27명)
- ④ 대구 대건중학교(49명)

기념관 방문단체



5	6
7	8
9	10

- ⑤ 정읍 배영고 국제교류단(7명)
- ⑦ 익산 남성고(23명)
- ⑨ 전북 귀농학교(30명)

- ⑥ 평택 라온중학교(18명)
- ⑧ 인천 부평구(5명)
- ⑩ 정읍 학산고등학교(25명)

기념관 방문단체



11	12
13	14
15	16

- ⑪ 정읍시 칠보면(5명)
- ⑬ 전남 무안동학기념사업회(18명)
- ⑮ 대순진리회(9명)

- ⑫ 광주 남초등학교(25명)
- ⑭ 정읍 왕신여자고등학교(42명)
- ⑯ 대전 상생방송 관계자(3명)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6월 10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물, 자료 구매 접수
6월 10일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담은 가극 '금강' 평양공연 재추진
6월 12일	환경일보	'동학농민군의 함성' 찾아가는 전시회
6월 25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군이 직접 쓴 편지 보러 오세요"
6월 28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독립운동 강좌 개설
7월 1일	엔터테인먼트	'녹두꽃'이 담아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
7월 15일	헤럴드	'녹두꽃', 몽클했던 갑오년의 역사
7월 15일	SBS	'녹두꽃', 끝까지 묵직했다...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동학농민혁명
7월15일	광주일보	고창 동학혁명 '무장포고문 필사 챌린지' 성료
7월22일	한겨레	"이름 없는 수십만 동학농민군 해원 위해"
7월23일	노컷뉴스	'동학혁명' 의미 일깨워준 조정석의 아픈 손가락 '녹두꽃'
7월23일	NEWSis	[인터뷰]최무성 "전봉준, 답습된 미인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
7월26일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 전북도 문화재 지정예고
8월 2일	전민일보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특강
8월12일	광남일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물 추가 공개
8월 19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8월 '문화가 있는 날'
8월 21일	뉴스워커	강진군, '이이화 학자 초빙'... 동학농민혁명운동 역사 재조명
8월 22일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격전지' 홍천서 내달 21일 전국 회포대회
8월 26일	아주경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힘차게 추진
9월 4일	경남일보	산청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9월 4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재인부대 추모제 대둔산 최후결전지서 열려
9월 6일	일간투데이	태안군, 77억 6,000만원 투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박차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및 활동내용		운영일정	장소	참여대상 /인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관내 어린이 프로그램 '내 친구, 녹두장군'	녹두장군 되어보기, 공예품 만들기, 녹두씨앗 심기	3~6월, 9~11월 (수·목·금) 60분 소요	어린이 전시실, 녹두학당	미취학 아동~ 초등 2학년 /40명 내외(단체)
	청소년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Go, Go 1894!'	동학농민혁명 이해, 나만의 예술작품 만들기, o·x 퀴즈	3~6월, 9~11월 (수·목·금) 이론 1시간/ 체험 2시간	상설전시실, 교육관	초등 3학년~ 중·고등학생 /40명 내외(단체)
		관외 청소년 프로그램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	동학농민혁명 이해, 도전! 골든 벨 보드게임	3~6월, 9~11월 (월·화) 이론 1시간/ 체험 2시간	전국 초등학교 방문 운영	초등학생 전 학년 /40명 내외
교원직무 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전문 강사의 강연 및 유적지 답사)		7월 25~26일/ 1박 2일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초·중등 교원 /40명 내외	
생생 문화재	1박 2일 답사 '황토현에서 1박 2일'		5월 25일~26일 6월 15일~16일 6월 29일~30일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일반인(성인 가족) /30명 내외	
	코레일 연계 답사 '열차타고, 갑오세 가보세'		9월~11월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중고생 /30명 내외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황토현에서 광화문까지'		9월~11월	기념관, 교육관	전국 중학생 /30명 내외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학예사가 되어보기'		9월~11월	기념관, 교육관	전국 중학생 /30명 내외	

※ 교육·체험 프로그램 신청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접속 → '교육체험'이동 → 신청하기 → 담당자와 일정 확인
전화 문의: 063-536-1894 (기념관) 대표 이메일: 1894@1894.or.kr

※ 기념관 전시해설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는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1894.or.kr)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동 → 예약 또는 전화문의 063-536-189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온라인 접수·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참고